

애플은 없다… 삼성

사상 최고 실적
반도체 세계 1위
애플 압도 이익

‘트리플 왕관’ 눈 앞에

SAMSUNG

예상 영업이익 ‘65조원’ 웃돌아
반도체 의존도 급상승에 우려도
AI·바이오 주도, 애플과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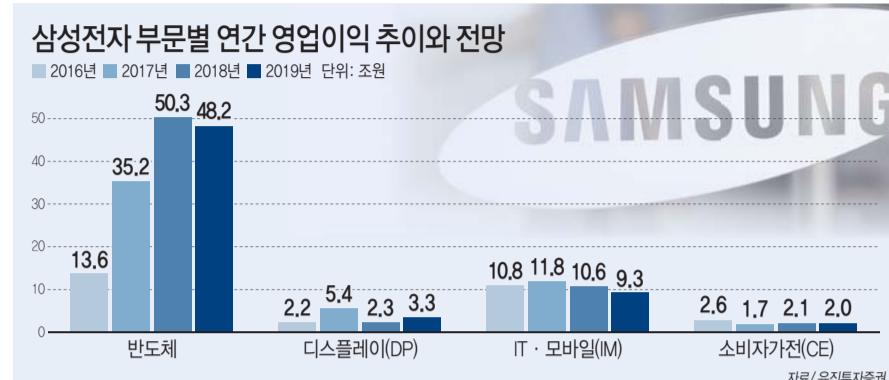
“대를 이어 물려줄 만한 주식이다.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승부사는 집을 팔아 삼성전자 주식을 산 투자자다.”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믿음이다. 한때 애플이 그랬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올해 ‘트리플 왕관’(사상 최고 실적·반도체 1위·애플 압도하는 영업이익률)을 쓸 가능성도 커졌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영업이익만 65조원을 웃돈다. 애플에 가려 늘 2인자였던 삼성전자가 주가에서도 세계 최고의 자리를 꿈꾸는 것은 이제 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다져놓은 탄탄한 리더십, 강력한 주주 환원책, 인공지능(AI)과 바이오사업 등 차별화된 먹거리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다.

◆‘매출 250조, 영업이익 65조’ 꿈 아니다
유안타증권은 10일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65조670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64조~65조원 대에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초대형 투자 수혜와 새 스마트폰 갤럭시노트9 출시라는 호재에도 반도체에 대한 우려에 4만원 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그럴만하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의존도는 급속히 커지고 있다. 영업이익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47%에서 올해는 78% 까지 커졌다.

“늘 한발 앞서 시장을 이끈 삼성전자가 직면한 ‘시샘과 성장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반도체 업종 투자 전망을 ‘매력적’에서 ‘중립적’으로 낮췄다. 또 삼성전자를 우선 매수 추천종목 명

단에서 뺐다. 골드만삭스는 “반도체 공급 과잉과 가격 조정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도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을 우려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망을 ‘중립’에서 ‘주의’로 낮췄다.

실제 올 상반기 삼성전자는 10조원 수준의 반도체 재고자산을 암고 있다. 이 중 75%(7조1218억원)가 완제품 전 단계인 ‘반제품’이다. 과거보다 완제품 생산에서 속도가 더뎌지면서 중간 제품 대기량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내 증권가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우라는 지적이다.

삼성증권 황민성 연구원은 “D램의 경우 내년 가격이 하락해도 그 폭이 크지 않

다면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다. 낸드의 경우 지속해서 하락하는 마진을 고려해 내년 투자를 미뤄 수익성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올해 영업이익률은 64조 6370억원으로 전망했다. 49조3610억 원이 반도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 김경민 연구원도 “D램 불황기를 족발했던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미세공정 전환 속도가 느려졌다. 선풍 죽소는 연평균 1~2nm 수준만 가능하다”면서 “1위 공급사로서 열쇠를 쥐고 있는 삼성전자가 전략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DRAM 부문)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작다”고 지적했다. 올해 영업이익은 64조 4340억원으로 전망했다.

2018년 한해 ‘연 매출 250조원·영업이익 65조원’ 달성이란 꿈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 영업이익률 초격차로 벌일 날까

애플의 시총과 영업이익(연간 기준)을 누를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는 게 시장 평가다. “애플 효과”는 있는데 ‘삼성효과’는 왜 없나(?)”는 비아냥까지 들었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바이오 시장의 주도권을 쥐면서 주가도 애플과 차별화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애플을

밟고 일어설 지 주목한다. 2분기 애플의 영업이익률을 첫 추월한 삼성전자는 3분기 26.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다. 금융정보업체인 팩트셋에 따르면 애플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률은 25.8%이다.

3분기만 놓고 보면 ‘남는 장사’를 잘하기로 세계에서 손에 꼽는 애플의 영업이익(추정치 158억달러, 약 17조8000억 원대)을 앞설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7조5000억원이다. 환율이 변수다.

4분기 장사만 잘하면 연간 영업이익률도 애플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각각 70조원, 17조7000억원을 예상했다.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률은 25.8%이다.

반도체 1위 자리는 굳건해 보인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현재 가동 중인 경기 화성·평택·기흥 등의 라인 외에 3곳에서 건설을 진행 중이다. 화성에 차세대 첨단 미세공정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도입한 라인, 평택에 2기 메모리 라인을 각각 건설 중이고, 중국 시안에 기존 V낸드·팹카지 라인 외 두 번째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삼성·LG디스플레이 ‘폭풍성장’ 예고

2020년, 폴더블 패널 매출 10兆 넘을 듯

내년 패널 출하수 310만대 추산
3년간 시장 규모 20배 커질 것

전 세계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규모가 오는 2022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마트폰은 물론 다른 IT 제품의 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중국 BOE 등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새로운 경쟁 구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DSCC)’는 이달 초 보고서에서 내년 전 세계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의 출하 대수를 약 310만대로 추산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회웨이가 내놓을 폴더블 스마트폰 수요에 따른 것이다. 이후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양산 체제가 본격화할 경우 가격이 급락하면서 폭발적



해외 디자인 테크컨피그레이션(Techconfigurations)이 지난 2월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윙(Galaxy Wing)’의 컨셉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테크컨피그레이션

인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오는 2022년에 폴더블 디스플레이 출하 대수가 약 6300만대로 추산, 단 3년 만에 시장 규모가 20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액은 연평균 151%의 증가율을 이어가며 2022년에는 89억달러(약 10조 800억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DSCC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향후 태블릿과 노트북PC 등으로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OECD 디스플레이 업계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향후 폴더블 디스플레이 시장 경쟁이 현재 플렉시블 OLED 패널 양산 라인을 갖추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중국 BOE 등 3개 업체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어떤 업체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장이 조성되는 만큼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을 중심으로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은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가운데 폴더블의 시장 매출이 2019년 기준으로 1억9800만달러에서 오는 2022년에는 26억7900만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조립 차량 탑승한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쌍용자동차 조립공장을 방문, 생산 중인 차량을 탑승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저신용자… 선택지 다양화 필요

» 1면 ‘서민엔 헛살 안 비치는…’서 계속

미소금융의 경우 6등급 이상 지원 비중이 64%다. 헛살론 47%, 바꿔드림론 24%, 새희망홀씨는 80%에 달했다. 반면 저신용자에 속하는 8등급 이하는 미소금융이 10%, 헛살론 14%, 바꿔드림론 22%, 새희망홀씨는 3%에 그쳤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기금에도 한도가

있고, 부도율을 적정선에서 관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 대다수가 대부업이나 불법 사채 등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향한다는 것.

8~10등급을 위한 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 제도가 있지만 이용 시 금융권에 기록이 남고 신용카드 제한 등이 있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외에도 다양한 정책 금융상품을 만들어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 돌린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8~10등급의 저신용자는 헛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지만 거절당하기 일쑤”라며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은 당장 있을 피해를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아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외에도 다양한 정책 금융상품을 만들어 선택지를 다양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원~~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 4일(화)

2018.11.25. 10:00~12:00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